



국어 영역(A형)

- | | | | | |
|-------|-------|-------|-------|-------|
| 1. ② | 2. ④ | 3. ② | 4. ② | 5. ⑤ |
| 6. ③ | 7. ④ | 8. ⑤ | 9. ④ | 10. ① |
| 11. ② | 12. ⑤ | 13. ③ | 14. ⑤ | 15. ⑤ |
| 16. ④ | 17. ③ | 18. ③ | 19. ④ | 20. ⑤ |
| 21. ② | 22. ② | 23. ④ | 24. ② | 25. ② |
| 26. ④ | 27. ④ | 28. ④ | 29. ③ | 30. ④ |
| 31. ④ | 32. ④ | 33. ② | 34. ③ | 35. ③ |
| 36. ⑤ | 37. ④ | 38. ② | 39. ④ | 40. ④ |
| 41. ① | 42. ⑤ | 43. ③ | 44. ④ | 45. ② |

법

1. 청중 분석에 따른 발표 전략 이해

정답 ②

발표 내용 중 ‘물론 낙서라고 하면 아무래도 좀 지저분하고 정제되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라는 부분을 통해, 발표자는 청중이 ‘낙서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을 것이다.’라고 분석하고 있음은 알 수 있다. 하지만 발표 내용 중 낙서의 부정적 인식이 잘못되었음을 비판하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또한 발표의 전체적인 흐름상 발표자는 그라피티의 긍정적 측면을 부각하기보다 디지털 그라피티의 성장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②는 적절한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

- ① 첫째 문단의 ‘저는 어릴 때부터 낙서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혼난 적도 많은데요, 여러분도 뒷골목 벽이나 책상에 몰래 낙서해 보신 적 있으시죠?’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③ 둘째 문단의 ‘이 화면을 보시면, 아 이런 거, 하실 겁니다. (<자료 1>)을 제시하며) 이처럼 그라피티는 벽에 페인트로 자유롭게 그리는 것으로, 미술관이 아닌 거리에서 마주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분을 통해 알 수 있다.
- ④ 둘째 문단의 ‘여러분, 그라피티라는 말이 좀 낯설죠?, “그라피티의 어원은 이탈리아어 그라피아토(graffiato)로 ‘긁는 다’는 뜻인데요”라는 부분을 통해 알 수 있다.
- ⑤ 발표자는 디지털 그라피티가, 그라피티처럼 흔히 그려졌던 뒷골목이 아니라 고층 건물과 같은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도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청중이 디지털 그라피티를 흔히 접하지 못했을 것으로 분석하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셋째 문단에서 <자료 2>로 실제 작품 영상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2. 발표 전략에 대한 이해

정답 ④

㉠ ‘상상만으로도 해방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를 보자. 이는 청중에게 질문을 던지는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의문문이 아니라 강한 긍정 진술을 내포하고 있는 수사 의문문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④는 적절하지 않다.

② ㉡은 질문을 통해 청중의 호기심을 자극하며 다음 내용 ‘디지털 그라피티’로 화제를 전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청중의 반응에 대한 적절성 판단

정답 ②

발표자는 ‘그렇다면 도심 공간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그라피티의 역동적이고 자유로운 정신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라며 그라피티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 주는 하나의 작업으로 디지털 그라피티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발표를 들은 청중이 ②처럼 ‘그라피티가 자유로운 정신을 상실한 것이 문제로군.’이라고 반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① 둘째 문단의 ‘긁거나 그리는 것은 그 연원이 원시 시대의 벽화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인류의 오래된 표현 행위라고 할 수 있죠.’ 부분을 통해 나타낼 수 있는 반응이다.
- ③ 둘째 문단의 ‘그런데 1960년대 뉴욕 거리에 ~ 일부 구역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부분과 ‘그렇다면 도심 공간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그라피티의 역동적이고 자유로운 정신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부분을 통해 나타낼 수 있는 반응이다.
- ④ 넷째 문단의 내용과 다섯째 문단의 ‘더구나 이 작업은 그라피티가 ~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도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을 토대로 나타낼 수 있는 반응이다.
- ⑤ 다섯째 문단의 ‘그라피티를 완성해 가는 과정에서 보이는 손의 움직임을 재현한 점도 이 작업의 특별한 점이지요.’ 부분을 통해 나타낼 수 있는 반응이다.

4. 대화자들의 말하기 전략 파악

정답 ②

대화에서 ‘민규’가 ‘경아’에게 ‘네가 좋아하는 김○○ 선생님도 참석하실 건데.’라고 말한 것은 ㉠(화자)의 측면에서 화자의 권위를 드러내려는 의도로 볼 수 없고, ㉡(청자)의 측면에서 청자의 관심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설득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 ① ‘민규’가 이번이 ‘다섯 번째 참여’라는 사실을 언급한 것은 그만큼 토론회에 대해 ‘민규’가 경험이 많다는 것을 말해 주므로, 이는 ㉠(화자)의 측면에서 신뢰성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 ⑤ ‘민규’가 세 번째 대화에서 영화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 보면 ‘위안’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은 화자(㉠)나 청자(㉡)의 측면이 아닌 ㉢(메시지)의 측면에서 메시지의 적절한 근거를 제시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5. 대화의 표지에 대한 이해

정답 ⑤

㉔의 ‘그건 그렇고’는 그 뒤에 이어지는 말인 ‘그럼 영화 토론 같이 하기로 한 거다.’를 통해 볼 때, 맞장구를 치면서 상대방의 의견에 동조하는 표지라기보다는 부수적인 화제에서 중심 화제로 화제를 전환하기 위한 표지로 볼 수 있다. 따라서 ⑤는 적절한 설명이라고 할 수 없다.

- ② ㉔ 뒤에 이어지는 ‘난 솔직히 별로 내키지 않아.’라는 내용을 통해 ㉔은 거절을 위한 대화 표지임을 알 수 있다.
 ④ ㉔은 영화 토론 동아리라는 화제에서 방학 동안의 학습에 대한 화제로 전환하는 표지라고 볼 수 있다.

문

6. 작문의 특성에 대한 이해

정답 ③

이 글에서, 글쓴이가 아침 독서 시간 운영에 관한 학생 대의원 회의 논의 내용을 서술한 것은, 독서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대의원들의 의견이 이 글을 쓰게 된 이유임을 밝히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③에서는 이를 통해 작문이 일반적인 절차가 있는 과정이면서 회귀적 과정임을 알 수 있다고 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7. 자료 활용 방안의 적절성 평가

정답 ④

<보기>의 (가)는 독서 실태에 대한 조사 자료로, 우리 학교 학생들의 연평균 독서량 부족과 평소 책 읽기를 어렵게 하는 요인에 대한 내용이다. 그리고 (다)는 독서가 대학 진학에도 영향을 주고 청소년기의 독서 습관이 성인이 되었을 때 사회생활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독서 활동이 중요함을 말하고 있는 자료이다. 따라서 이 자료들을 활용하여 셋째 단락에서 아침 독서 시간 운영을 통해 면학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는 내용을 보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⑤ (나)는 아침 독서 시간을 운영하는 학교들이 늘고 있다는 것과 아침 독서가 독서 습관 형성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고, (다)는 청소년기의 독서 습관이 성인이 되었을 때 사회생활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독서 활동이 중요함을 말하고 있다. 따라서 이 자료들을 활용하여 셋째 단락에 아침 독서를 통해 형성된 독서 습관이 성인이 되었을 때의 사회생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8. 조건에 따른 내용 생성의 적절성 파악

정답 ⑤

<보기>의 조건에 따르면 댓글의 내용은 학생회장의 생각에 동의하는 부분을 먼저 밝히고, 제안과 관련하여 문제점을 지적한 후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러한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것은 ⑤이다. ⑤는 ‘아침 독서 시간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해서는 수긍합니다.’로 시작하여 학생회장의 생각에 동의하는 부분을 먼저 밝혔고, ‘그렇지만 자율 학습 대신 아침 독서를 하자는 제

안은 학생 대의원 회의에 참여한 일부 학생들의 생각일 뿐 우리들 모두의 의견을 아닐 수 있습니다.’라고 하여 제안과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며, 곧 이어 ‘학급 회의를 통해 전체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아침 독서 시간을 운영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라고 하여 문제점과 관련한 대안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 ① 학생회장의 생각이나 제안과 관련이 없는 내용이다.
 ②, ③ 학생회장의 생각에 동의하는 부분이 제시되지 않았다.
 ④ 학생회장의 생각에 동의하는 부분을 먼저 밝히고, 제안과 관련하여 문제점도 지적하였지만 그 후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댓글이라고 할 수 없다.

9. 글쓰기 전략과 구체화 방안의 적절성 판단

정답 ④

주어진 ‘김누리 학생의 수필’은, 설 전날 어머니와 함께 마트에 갔다가 겪은 평범한 사건을 아저씨의 입장에서 헤아려 보고, 배려 받지 못한 아기를 통해 행복이라는 삶의 본질적인 문제에 접근하고 있는 글이다.

넷째 문단에서 글쓴이는 ‘우선은 도시 공공시설에 아빠들이 이용할 수 있는 수유실을, 남자 화장실에 기저귀 교환대 설치를 확대해야겠지만’이라며 성찰한 내용에 대한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예상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부분은 찾을 수 없으므로 ④는 글쓰기 전략에 대한 구체화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다.

- ② 첫째, 둘째 문단에서의 아저씨의 동작에 대한 묘사, 그리고 둘째 문단에서의 현재형 종결 표현(‘-ㄴ다’) 등을 통해 현장감이 효과적으로 느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③ 둘째 문단에서 ‘마치 과도타기를 하는 것처럼’, 넷째 문단에서 ‘계절이 돌아오듯’ 등과 같은 비유법이 사용되었다.

10. 고쳐 쓰기 방안의 적절성 평가

정답 ①

㉔에는 아저씨가 아기를 데리고 화장실로 갈 것이라는 학생의 예상과 아저씨가 그 자리에서 기저귀를 갈기 시작했다는 내용을 이어 주는 접속어가 들어가야 한다. 따라서 ‘비록 사실은 그러하지만 그것과는 상관없이’라는 의미를 가진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관용구는 적절하지 않다. 그렇다고 이를 ‘한편’으로 고쳐도 적절하지 않다(①). ‘한편’은 ‘어떤 일에 대하여, 앞에서 말한 측면과 다른 측면을 말할 때 쓰는 말’이기 때문이다. ㉔은 문장의 접속 관계를 고려할 때, 화제를 앞의 내용과 관련시키면서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때 또는 앞의 내용과 상반되는 내용을 이끌 때 쓰는 접속 부사인 ‘그런데’ 정도로 고쳐 쓰는 것이 적절하다.

- ② 현재 상태로는 ‘고약한 냄새(가)’에 필요한 서술어가 생략되어 문법상 어긋난 표현이므로, ‘고약한 냄새(가)’에 필요한 서술어 ‘나고’를 첨가하는 방안은 적절하다.
 ③ 한글 맞춤법 제25항에 따르면, 부사에 ‘-이’가 붙어서 뜻을

더하는 경우에는 그 어근이나 부사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㉔은 부사 ‘곰곰’에 ‘-이’가 붙어서 역시 부사가 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곰곰이’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 ④ ㉔ 앞의 내용이 논리적 모순을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㉔에는 ‘역설’이 어울린다. ‘궤변’은 ‘상대편을 이론으로 이기기 위하여 상대편의 사고(思考)를 혼란시키거나 감정을 격앙시켜 거짓을 참인 것처럼 꾸며 대는 논법’이다.

법

11. 음운 변동에 대한 이해 및 적용

정답 ②

<보기>의 ‘늑여름’은, 표준 발음법 제29항 합성어 및 파생어에서 앞 단어나 접두사의 끝이 자음이고 뒤 단어나 접미사의 첫음절이 ‘이, 야, 여, 요, 유’인 경우에는, ‘ㄴ’ 음을 첨가하여 [니, 나, 녀, 뇨, 뉴]로 발음한다는 규정에 의해 우선 [늑녀름]으로 발음되고, 다시 제8항 받침소리로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7개 자음만 발음한다(음절의 끝소리 규칙)는 규정에 의해 [늑녀름]으로 발음되었다가, 제18항 받침 ‘ㄱ(ㄱ, ㅋ, ㆁ), ㄴ(ㄴ, ㄸ, ㅌ, ㄹ), ㄷ(ㄷ, ㅌ, ㅊ, ㅌ), ㄹ(ㄹ, ㄺ, ㄻ, ㄼ, ㄽ, ㅍ)’은 ‘ㄴ, ㄷ’ 앞에서 [ㅇ, ㄴ, ㄷ]으로 발음한다(비음화)는 규정에 의해 [늑녀름]으로 발음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②처럼 ‘늑여름’이 [늑녀름]으로 발음될 때에는 ‘ㄷ’이 탈락하면서 ‘ㄴㄴ’이 첨가되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②의 설명은 옳지 않다.

12. 본용언과 보조 용언의 구별 과정 이해

정답 ⑤

<보기 1>의 ㉑에 해당하는 것은 보조 용언이 사용된 문장이다. 따라서 <보기 2>의 ㉒~㉔에서 보조 용언이 사용된 문장을 찾으면 된다. <보기 1>을 근거로 할 때, ㉑은 두 개의 용언이 보조적 연결 어미로 이어져 있으면서 앞의 용언을 생략했을 때 문장이 성립되지 않으면 된다.

㉒의 ‘읽고 싶다’는 ‘읽다’와 ‘싶다’라는 두 개의 용언이 연결 어미 ‘-고’로 이어져 있으면서 앞의 용언 ‘읽고’를 생략하면 ㉒를 포함한 문장은 ‘나도 책을 많이 싶다.’가 되어 문장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㉒는 보조 용언이 사용된 문장, 즉 ㉑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㉓의 ‘먹어 보자’도 ‘먹다’와 ‘보다’라는 두 개의 용언이 연결 어미 ‘-어’로 이어져 있는데 앞의 용언 ‘먹어’를 생략하면 ㉓를 포함한 문장은 ‘그것만 좀 더 보자.’가 되어 본래 문장에서 ‘보다’가 가지고 있던, 어떤 행동을 시험 삼아 함을 나타낸다는 의미와 다른 의미가 성립되므로 ㉓ 또한 보조 용언이 사용된 문장, 즉 ㉑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참고로, 보조 용언은 자립성이 없으므로 본용언을 생략하면 문장의 의미가 성립하지 않거나 본래의 문장과 전혀 다른 의미를 지니게 된다.

13. 안은문장과 안긴문장에 대한 이해

정답 ③

㉔‘이마에 흐르는’은 ‘땀’을 수식하고 있으므로 관형절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㉔을 안은문장의 주어는 ‘그는’이고, 안긴문장 ㉔(땀이) 이마에 흐르다’에서 주어는 ‘땀이’가 되므로, ㉔을 ③처럼 안은문장과 공통 주어 생략되어 관형어의 역할을 하는 관형절이라고 탐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㉕ ‘날씨가 아주 덥다’는 안은문장의 주어 ‘오늘은’의 서술어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서술절에 해당한다.

㉖ ‘지금 돌아가기가’는 명사형 어미 ‘-기’가 붙은 명사절 뒤에 조사 ‘가’가 결합되어 안은문장의 주어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㉗ ‘날씨가 참으로 덥다’는 인용격 조사 ‘고’가 붙어 주체인 ‘그’의 말이나 생각을 옮기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인용절에 해당한다.

㉘ ‘소리도 없이’는 부사형 어미 ‘-이’의 도움을 받아 서술어 ‘다가온’을 수식하고 있으므로 부사절에 해당한다.

14. 사전의 이해 및 활용

정답 ⑤

<보기>를 통해 볼 때, ‘이르다’의 의미는 ‘대중이나 기준을 잡은 때보다 빠르거나 앞서다.’이다. 그런데 ⑤에서 ‘이르다’의 용례로 사용된 ‘그는 항상 나보다 빨리 결승점에 이르렀다.’의 ‘이르다’는 ‘이르다’의 ㉑‘어떤 장소나 시간에 닿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⑤는 ‘이르다’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한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

③ ‘이르다’의 경우 어간에 어미 ‘-어’가 붙으면 ‘이르러’로 활용되는 반면, ‘이르다’의 경우는 어간에 어미 ‘-어’가 붙으면 ‘일러’로 활용되어 그 활용 형태가 다를 수 있다. 참고로, ‘이르다’는 러불규칙 용언에 해당하고, ‘이르다’는 르불규칙 용언에 해당한다.

④ ‘이르다’ ㉑은 【…에】라는 필수 부사어를 필요로 하는 두 자리 서술어인 반면, ‘이르다’ ㉒은 【…에게 …을】이라는 필수 부사어와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세 자리 서술어이므로, 이들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가 서로 다르다고 볼 수 있다.

15. 높임 표현에 대한 이해

정답 ⑤

㉔을 보면 화자인 장모는 사위를 높여 말해야 할 필요는 없으나 아주 낮춰 말하기가 어색하므로 예사 낮춤의 하계체 명령형 어미를 통해 사위를 낮추어 말하고 있다. 그런데 ⑤에서는 ㉔에서 화자인 장모가 두루 높임의 하계체 명령형 어미를 통해 사위를 높여 말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화자인 손자는 청자인 할아버지를 고려하여 특수 어휘 ‘잡수시다’를 사용하였지만, 청자인 할아버지를 고려하여 말을 한 주체인 고모는 할아버지보다 낮은 사람임을 고려하여

‘하였습니다’와 같이 높이지 않았다. 이는 문장의 주체가 화자보다는 높지만 청자보다는 낮아, 그 주체를 높이지 못하는 어법인 압존법에 해당한다.

문

[16~18] 지문 해제

코드 선택 및 전환에 대한 이해

세계의 언어학계에서 언어와 방언이라는 용어를 대신해 사용될 수 있는 적절한 용어로 인정받고 있는 ‘코드(code)’에 대해, 그리고 그와 관련하여 ‘코드 선택’, ‘코드 전환’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글이다. ‘코드’는 언어와 방언의 개념을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방언이라는 용어에 숨어 있는 부정적 함축은 물론 언어와 방언 간의 모호한 계층 관계로 인한 문제점을 피할 수 있게 해 준다. 우리는 다양한 일상 생활 속에서 처한 사회적 상황이나 담화 맥락 등을 고려하여 특정 코드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데 이를 ‘코드 선택’이라고 한다. ‘코드 선택’은 그 선택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개인적 차원의 코드 선택과 국가적 차원의 코드 선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또한 이미 특정 코드를 선택하여 사용하는 도중에 다른 코드로 교체해야 하는 상황도 처하게 되는 이러한 현상을 ‘코드 전환’이라고 한다. 코드 전환은 그것이 발생하게 되는 동기에 따라 상황적 코드 전환과 인식적 코드 전환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한국 사회는 공식적으로 한국어만을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고, 언어와 방언 사이의 위계 관계도 비교적 명확하기 때문에 코드 개념이 아직까지 필요해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다문화가족 수가 점점 늘어나고 글로벌화가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머지않아 코드 선택이나 전환과 관련된 문제들이 중요한 이슈로 떠오를 수 있다.

16. 세부 정보에 대한 구체적 이해

정답 ④

넷째 문단에서 ‘상황적 코드 전환은 대화 참여자, 화제, 맥락 등과 같은 담화 구성 성분의 변화, 즉 외적 동기에 의해서 화자가 다른 코드를 새로이 선택하게 될 때 발생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④의 ‘대부분의 화자들은 담화 구성 성분상의 변화가 없을 경우에 상황적 코드 전환을 한다.’라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17. 내용 파악을 통한 구체적 자료의 이해

정답 ③

<보기>를 보면 ㉠ ‘제주도 본토박이 화자 60명’은 ‘선택의 출발점’에서 네 개의 담화 고려 요소를 고려하여 표준말과 제주말이라는 두 가지 코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네 개의 담화 고려 요소 중 제일 먼저 고려하는 요소는 ‘상대방의 지역 정체성’이고, 그 다음은 ‘공식성’, ‘사회적 거리’ 그리고 마지막이 ‘사회적 지위’이다. 따라서 ③처럼

‘네 개의 담화 고려 요소 중 상대방의 사회적 지위 관계를 제일 먼저 고려하는군.’이라고 이해한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④ 상대가 제주 사람인 경우 공식적인 상황에서는 표준말을 사용하지만 비공식 상황에서는 표준말과 제주말을 사회적 거리와 지위에 따라 달리 선택하여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제주 사람과의 대화 중에 공식성이 공식에서 비공식으로 변화하거나 비공식에서 공식으로 변화한다면 표준말과 제주말 코드가 서로 교체하는 현상, 즉 코드 전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⑤ <보기>를 보면 사회적 거리가 비친밀할 때는 표준말과 제주말을 사용하지만, 친밀할 때는 제주말만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상대방과의 사회적 거리를 의도적으로 가깝게, 즉 친밀하게 조정하기 위해서는 표준말에서 제주말로 코드 전환을 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다.

18. 내용 이해에 따른 상황 판단의 적절성 판단 정답 ③

셋째 문단에서, 국가가 자국의 언어 상황이나 정치·경제적 이익 관계 또는 국제 외교 관계 등의 거시적 차원을 고려하여 특정 코드를 선택하는 것을 ‘국가적 차원의 코드 선택’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그 예로 ㉠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에서 우크라이나는 친유럽 성향의 정부가 들어서고(정치적 차원) 크림 반도를 러시아군이 장악하게 되면서(군사적 차원), 러시아의 군사 개입에 대한 일종의 반감의 표시로(외교적 차원) 자국 내에서 러시아어가 가지고 있던 제2공식어로서의 지위를 박탈하였다고 하였다. 따라서 ③처럼 우크라이나는 언어가 아닌 정치, 군사, 외교적 차원에서 국가적 차원의 코드 선택을 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과 학

[19~21] 지문 해제

인간의 색 지각 과정 이해

인간의 색 지각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글이다. 인간의 색 지각 과정은 망막의 추상체에서 시작된다. 추상체는 감광 색소에 따라 L, M, S 세 가지 종류로 나뉘는데, L추상체는 빛의 스펙트럼 중 적색(R)에 가까운 장파장에서, M추상체는 녹색(G)에 가까운 중파장에서, S추상체는 청색(B)에 가까운 단파장에서 빛을 최대로 흡수한다. 추상체가 빛을 흡수함으로써 전기적으로 흥분하여 신호를 방출할 때, 우리는 빛을 지각할 수 있다. 색 지각의 다음 단계는 망막에 분포된 신경절 세포를 중심으로 진행되는데, 백만 개의 신경절 세포들은 추상체에서 나온 전기 신호를 수렴하여 기초적인 연산을 수행한다. 그런데 그러한 연산이 가능한 것은 추상체에서 뇌로 이르는 수직적 경로의 각 요소들마다 그것들을 상호 연결하는 수평적 연결이 더해져 일종의 회로를 구성하기 때문이다. 이 회로들의 기능은 대립과정 이론을 통해 이

해할 수 있다.

19. 세부 정보에 대한 분석적 이해

정답 ④

셋째 문단에서 ‘삼원색 이론은 정상 시각을 가진 사람의 경우, 파장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가 달린 세 개의 광원만 있으면 눈에 보이는 모든 색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실험 결과에 근거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정상 시각을 가진 사람은 두 가지 빛의 조합으로 모든 색상을 만들 수 있다.’는 ④는 지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20. 조건에 따른 해결 방안의 적절성 판단

정답 ⑤

지문에서는 망막 추상체와 신경절 세포의 회로를 중심으로 인간의 색 지각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넷째 문단에서는 인간의 색 지각 과정 중 신경절 세포를 중심으로 설명하면서 ‘백만 개의 신경절 세포들은 7백만 개의 추상체에서 나온 전기 신호를 수렴하여 기초적인 연산을 수행하게 되는데, 그러한 연산이 가능한 것은 추상체에서 뇌로 이르는 수직적 경로의 각 요소들마다 그것들을 상호 연결하는 수평적 연결이 더해져 일종의 회로를 구성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생체 눈의 구조와 기능을 온전히 구현하기 위해서는 눈의 추상체 개수만큼 RGB센서를 확보한 후 이를 일대일로 뇌에 연결해야 한다는 ⑤는 적절한 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 ① 넷째 문단의 ‘백만 개의 신경절 세포들은 7백만 개의 추상체에서 나온 전기 신호를 수렴하여 기초적인 연산을 수행하게 되는데, 그러한 연산이 가능한 것은 추상체에서 뇌로 이르는 수직적 경로의 각 요소들마다 그것들을 상호 연결하는 수평적 연결이 더해져 일종의 회로를 구성하기 때문이다.’ 부분을 통해 알 수 있다.
- ② 세포 회로들의 기능은 대립과정 이론을 통해 이해할 수 있는데, 대립과정 이론에 따르면 적색과 녹색에 대한 지각과 청색과 황색에 대한 지각이 각각 단일한 체계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립쌍의 한 쪽 빛에는 흥분하고 다른 쪽 빛에는 흥분을 억제하도록 작용하게 된다. 이는 네 가지 신경절 세포 회로의 발견으로 증명되었는데, ‘Y+B-’ 세포 회로가 R, G센서를 연결하여 B센서와 대립적으로 작용하는 회로에 해당한다.

21. 자료에 대한 반응의 적절성 평가

정답 ②

지문에 제시된 그림을 바탕으로 적색 빛이 눈에 들어왔을 때 세포 회로의 반응을 살펴보면, R+G- 세포 회로에서는 흥분 반응을, G+R- 세포 회로에서는 억제 반응을, B+Y- 세포 회로에서는 억제 반응을, 그리고 Y+B- 세포 회로에서는 흥분 반응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세포 회로의 반응을 모두 옳게 제시한 것은 ②이다.

술

[22~23] 지문 해제

전자종이 관련 기술의 원리와 장단점

전자종이는 종이처럼 얇은 재질과 유연성을 가지면서도 정보의 저장, 변환 및 송수신 등이 가능한 디스플레이를 말한다. 전자종이 관련 기술 중 하나인 전기영동 방식은 유동성 매체 내에서 전하를 띤 물질들이 전기장의 영향을 받아 움직이는 것을 이용한 방식으로, 일단 한번 디스플레이 되고 나면 전압을 제거한 후에도 다른 전압을 가하여 다른 디스플레이 내용으로 바꿀 때까지는 현재 상태가 유지되므로 전력 손실을 최소화하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구동 전압이 너무 클 경우 구동의 불안전성이 존재하고, 공은 유체의 저항을 받기 때문에 응답 속도가 느리다는 점, 컬러 표현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색 필터가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 또 다른 전자종이 기술인 전기습윤 방식은 전압을 가하면 물의 표면장력이 달라지는 현상을 이용한 것인데, 속도면에서 매우 우수한 반면, 기름 층과 물 층의 유체 층을 안정적으로 주입 및 보존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22. 세부 정보에 대한 구체적 이해

정답 ②

- 둘째 문단의 ‘만일 구동 전압이 너무 클 경우 공이 회전보다 직진을 먼저 하게 되어, 부분 회전한 상태로 안정화되는 등 구동의 불안전성이 존재한다.’라는 내용을 통해 볼 때, ‘전기영동 방식의 회전 공은 직진은 하지 않으며 회전만이 가능하다.’는 ②는 지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 ④ 전기영동 방식을 설명한 둘째 문단의 ‘공은 유체의 저항을 받기 때문에 응답 속도가 느리다는 점’ 부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다.
- ⑤ 전기습윤 방식을 설명한 마지막 문단의 ‘가해지는 전압 차가 클수록 기름 층이 좁은 영역으로 모이게 되므로 전압 차를 조절해 진하기를 달리할 수 있다.’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23. 내용 파악을 통한 구체적 자료에의 적용

정답 ④

지문의 내용과 <보기 1>을 참고하여 <보기 2>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자.

- ㉠ 둘째 문단에서 ‘만일 구동 전압이 너무 클 경우 공이 회전보다 직진을 먼저 하게 되어, 부분 회전한 상태로 안정화되는 등 구동의 불안전성이 존재한다.’라고 하였으므로 (가) 전기영동 방식에 전압을 높게 할수록 해상도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질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 ㉡ 마지막 문단에서 ‘가해지는 전압 차가 클수록 기름 층이 좁은 영역으로 모이게 되므로’라고 하였으므로 (나) 전기습윤 방식의 전압 차를 높이면 ㉢의 원 모양이 작아진다고 말할 수 있다.

- ㉔ 둘째 문단에서 ‘일단 한번 디스플레이 되고 나면 전압을 제거한 후에도 다른 전압을 가하여 다른 디스플레이 내용으로 바꿀 때까지는 현재 상태가 유지되므로’라고 하였으므로 ㉔의 상태에서 전압을 해제해도 ㉔의 상태를 유지할 것이다.
- ㉕ 마지막 문단에서 ‘전기습윤 방식은 전압을 가하면 물의 표면장력이 달라지는 현상을 이용한 것이다.’라고 하였고, <그림 2>에서 (C)는 전압을 가하기 전 (A)를 위에서 본 그림이고, (D)는 전압이 가해진 (B)를 위에서 본 그림이라고 하였으므로, <보기 1>에서 컬러 기름이 한쪽에 뭉쳐 있는 ㉕의 전압을 해제하면 ㉕과 같이 컬러 기름이 전체에 퍼져 있는 상태로 변할 것이라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 따라서 <보기 2>의 ㉕~㉕ 중 ㉕와 ㉕만이 적절한 설명이므로, ㉕가 정답이다.

솔

[24~26] 지문 해제

예술적 식별과 판단에 따른 의문과 그에 대한 흠의 견해

이 글은 예술적 식별과 판단에 대한 여러 의문들을 제기하고 그와 관련한 흠의 견해를 서술하고 있다. 먼저 예술 작품에 대한 감상이나 판단이 주관적이라는 점과 관련한 의문들에 대해서 흠은 예술적인 판단은 색이나 맛과 같은 지각 가능한 성질에 대한 판단과 유사하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예술적인 식별과 판단은 다양한 작품을 감상하고 세련된 감수성을 지닌 사람들의 말을 들음으로써, 또는 좋은 비평을 읽음으로써 개발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예술 비평가들의 판단이나 식별이 올바른가에 대한 의문에 대해서 흠은 진정한 판단의 개념을 들어 설명하였다. 또한 예술 비평가들의 비평의 불일치에 대한 의문에 대해서 흠은 비평가 개인의 성격적인 기질의 차이와 자격을 갖춘 비평가라 할지라도 자기 시대의 특정한 믿음이나 태도, 가정들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불일치가 생겨난다고 설명하였다.

24. 내용 파악을 통한 글의 전개 방식 이해 정답 ②

지문이 전개된 방식을 보면, 첫째 문단에서는 예술 작품에 대한 주관적 감상이나 판단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고, 둘째 문단에서는 이에 대한 흠의 견해를 제시하였다. 셋째 문단에서는 예술 비평가들의 판단이나 식별이 올바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고, 넷째 문단에서는 이에 대한 흠의 견해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여섯째 문단에서는 예술 비평가들의 비평의 불일치에 대한 의문과 이에 대한 흠의 견해를 제시하였다. 따라서 지문이 전개된 방식을 가장 적절하게 설명한 것은 ②이다.

25. 내용 이해를 통한 구체적 자료에의 이해 정답 ②

<보기>에서 오늘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㉕ 후기 인상주의

작가들의 작품'은 처음 전시되었을 당시는 학계와 전문가들에게조차 이해받지 못하고 조롱당했다고 하였다. 이에 반해 ㉕ '프랭크 브랭킨'은 당대의 사람들에게는 찬양을 받았지만 오늘날의 비평가들에게는 지나치게 평면적이고 정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을 통해서는 예술적 판단과 식별이 개발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②는 적절하지 않다.

- ① ㉕에 대해 ㉕는 그 가치를 인정하였지만 ㉕는 그렇지 않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㉕와 ㉕의 반응은 비평에 있어서의 불일치를 보여 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 ③ 당시의 소수 비평가들인 ㉕는, ㉕에 대해 오늘날과 시대와 문화, 태도들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㉕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고 있으므로, '진정한 판단'이라고 할 수 있다.
- ④ ㉕ '프랭크 브랭킨'은 당대의 사람들에게는 찬양을 받았지만 오늘날의 비평가들에게는 지나치게 평면적이고 정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므로 시간과 공간의 장벽, 즉 '시간의 테스트'를 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 ⑤ 마지막 문단의 '이에 따르면 살아있던 당시에는 갈채를 받았던 예술가의 작품이~그 시대에만 특별했던 태도나 가정에 의존해 있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를 통해 알 수 있다.

26. 세부 내용에 대한 구체적 이해 및 적용 정답 ④

㉕ <돈키호테>에 나오는 이야기'에는 마을 사람들이 느낄 수 없었던 포도주 맛의 요소들, 즉 포도주 통 밑바닥에서 가죽 끈에 묶인 녹슨 열쇠의 맛을 식별해 낸 두 명의 전문가가 나온다. 한 명은 포도주에서 쇠 맛이 살짝 난다고 말한 사람이고, 또 다른 사람은 가죽 맛이 향을 망쳤다고 말한 사람이다. 이 둘은 서로 포도주 맛이 이상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일치했지만, 포도주의 이상한 맛에 대한 원인 진단은 달랐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④는 ㉕ <돈키호테>에 나오는 이야기'에서 ㉕ '자격을 갖춘 비평가들, 심지어는 최고의 비평가들에서조차 비평의 불일치가 생겨난다는 점이다.'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사 회

[27~30] 지문 해제

인간자본 이론에 대한 이해

게리 베커에 의해 체계화된 인간자본 이론을 설명하고 있는 글이다. 인간자본 이론은 투자에 의해 인간에게 형성되고 체화된 지식 및 기능 등의 생산적인 힘을 '인간자본'이라 규정하고, '인간자본에 대한 수요 및 공급곡선'을 통해 소득 격차를 설명한다. 베커는 '인간자본에 대한 수요 및 공급곡선'에 따라 소득 격차를 엘리트주의적 접근 방법과 평등주의적 접근방법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전자는 투자 기회

측면에서의 공급 조건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지만 수요 조건, 즉 동일한 투자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능력 면의 차이 때문에 소득 격차가 발생한다고 본다. 그러나 후자는 모든 사람의 타고난 능력은 비슷하므로 같은 양의 투자로 기대할 수 있는 수익도 비슷하다고 본다. 따라서 수요 조건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기 때문에 공급 조건의 차이, 즉 투자 기회에서의 차이에 의해 소득 격차가 야기된다고 본다. 이러한 베커의 인간자본 이론은 소득 격차를 설명하는 데에 상당한 공헌을 하였지만 사회·문화적 요인을 완벽하게 고려하지 않았고 교육의 의미와 효과를 과대평가하였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7. 세부 내용에 대한 구체적 이해

정답 ④

첫째 문단에서, 인간자본 이론에서는 '투자에 의해 인간에게 형성되고 체화된 지식 및 기능 등의 생산적인 힘을 인간자본이라 규정하고 인간자본을 형성하기 위한 직접적인 지출, 그로 인해 포기된 소득 등을 인간자본에 대한 투자로 파악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④의 '인간자본 이론에서는 인간자본 형성을 위해 포기한 소득을 배제하고 투자를 정의한다.'라는 설명은 지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28. 내용 이해를 통한 구체적 자료에의 적용

정답 ④

셋째 문단의 인간자본에 대한 수요 및 공급 곡선에 대한 설명에 따르면, 각 개인은 한계수익이 한계비용을 상회하는 한 인간자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것이기 때문에 한계수익과 한계비용이 일치하는 수준, 즉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교차하는 점까지 인간자본에 대한 투자를 한다. 이에 근거하여 <보기>의 (나)를 보면 K_1 은 '다회'의 수요곡선 D_1 과 공급곡선 S 가 만나는 지점이기 때문에 OK_1 은 '라회'의 인간자본에 대한 투자량이 아니라 '다회'의 인간자본에 대한 투자량이다. 따라서 ④는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 ① 셋째 문단에서 인간자본 투자의 총수익은 수요곡선의 아래에 있는 사다리꼴의 면적으로 표시된다고 하였고, (가)에서 '가회'는 S_1 의 공급곡선과 D 의 수요곡선을 가지기 때문에 K_1 까지 투자를 하므로, $OAMK_1$ 은 '가회'의 인간자본 투자에 대한 총수익이다.
- ② 셋째 문단에서 인간자본 투자의 총비용은 공급곡선 아랫부분의 사다리꼴의 면적으로 표시된다고 하였고, (가)에서 '나회'는 S_2 의 공급곡선과 D 의 수요곡선을 가지기 때문에 K_2 까지 투자를 하므로, $OCNK_2$ 은 '나회'의 인간자본 투자에 대한 총비용이다.
- ③ 셋째 문단에서 인간자본 투자의 순이익은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뺀 차액인 삼각형의 면적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나)에서 '다회'의 총수익은 $OBMK_1$ 이고, 총비용은 $OCMK_1$ 이므로 '다회'의 인간자본 투자에 대한 순이익은 $OBMK_1$ 에서 $OCMK_1$ 을 뺀 차액인 삼각형 BCM 의 면적이다.

- ⑤ (나)에서 '다회'의 순수익은 총수익 $OBMK_1$ 에서 총비용 $OCMK_1$ 을 뺀 BCM 이고, '라회'의 순수익은 총수익 $OANK_2$ 에서 총비용 $OCNK_2$ 을 뺀 ACN 이므로, ACN 에서 BCM 을 뺀 $ABMN$ 이 '다회'와 '라회'의 소득 격차이다.

29. 자료에 대한 해석의 적절성 판단

정답 ③

평등주의적 접근 방법에 따르면, 수요 조건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기 때문에 공급 조건의 차이, 즉 투자 기회에서의 차이에 의해 소득 격차가 야기된다. 따라서 이 시각은 소득 격차 해소를 위해 저소득층에게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고 노동 시장 접근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정책적 함축을 도출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다.

<보기>의 (가)를 보자. '가회'와 '나회'가 소득 격차가 발생하는 이유는 한계비용(투자 기회의 차이를 반영한 값)의 차이 때문이다. 그런데 평등주의적 접근 방법에서는 이러한 소득 격차를 교육 기회의 보장을 통해 해소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므로 ③은 적절한 해석이다.

30. 외적 자료를 근거로 한 비판의 적절성 판단

정답 ④

<보기>에 제시된 인도의 경우 인간자본에 대한 투자로 얻을 수 있는 소득이 계급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동일한 조건에서 교육을 받고 같은 인간자본을 획득하였다고 할지라도 하위 계급 노동자는 상위 계급의 노동 시장에 진입하기가 어려워 높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노동에 참여하는 것이 힘들다. 그런데 ㉠'베커로 대표되는 인간자본 이론'에서는 저소득층에게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고 노동 시장 접근 기회를 확대하여 소득 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보기>를 근거로 할 때 ㉠에 대해 '인간이 속해 있는 공동체의 사회 구조나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소득 격차를 설명하는 것은 불충분하다.'라는 비판을 제기할 수 있다.

[31~33] 작품 해제

박재삼, 「화상보(華想譜)-'춘향이 마음' 초(抄)」

이 시는 미래에 대한 꿈과 소망으로 현재 옥에 갇혀 있는 자신의 현실을 견뎌 내고 있는 춘향의 마음을 산문적, 비유적으로 그리고 있는 작품이다. 1연에서는 수청을 거절한 춘향이 칼을 쓰고 옥에 갇혀 자고 있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녀를 꽃에 비유함으로써 그녀가 흘린 눈물들은 꽃이 파리가 되어 떨어지고 있다. 2연에서는 칼을 쓰고 잠을 자고 있는 춘향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다. 춘향은 꿈속에서 그토록 그리는 이몽룡과 훌륭한 꽃동산을 이루고 이를 가꾸는 슬기를 생각했을 것이다. 그리고 꿈속에서는 한결같이 이몽룡이 이룬 꽃동산의 둘레를 거닐다가 제자리인 현실의 감옥으로 돌아오는 일을 맘대로 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칼을 쓰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미래에 대한 꿈과 소망이 있기에 춘향은 이몽룡에 대해 일편단심의 마음을 가질 수 있었다. 그렇지 않다면 그 많은 새벽마다를 사랑치고 그렇게 같은 때를 잠을 깰 수는 도무지 없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

31. 작품 속 화자에 대한 이해

정답 ④

이 시의 1연에서는 칼을 쓰고 옥에 갇혀 자고 있는 춘향을 묘사하고 있고, 2연에서는 춘향의 '일편단심(一片丹心)'을 생각해 보아라.'라며 이몽룡과의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으로 현실의 고통을 참고 견디는 춘향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다. 따라서 이 시의 화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④이다.

32. 작품의 표현상 특징 이해

정답 ④

④를 보자. ④에서는 "2연의 '아니라면'은 1연의 '그렇다'에 대한 부정을 의미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1연의 '그렇다'가 춘향이 칼 위에 흘린 눈물이 꽃 이파리가 겹쳐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라면, 2연의 '아니라면'은 춘향이 꿈속에서는 한결같이 이몽룡이 이룬 꽃동산의 둘레를 거닐다가 제자리인 현실의 감옥으로 돌아오는 일을 맘대로 하였을 것이라는 확신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④는 적절한 설명이라고 할 수 없다.

33. 자료를 활용한 작품 감상의 적절성 평가

정답 ②

이 시에서 '슬기'는 꿈속에서 춘향이 부채하는 대상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인 '꽃동산'을 가꾸는 '슬기'이므로 주체의 감정과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는 할 수 있지만, '춘향'의 감정과 태도의 상호 작용이 소멸된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②는 적절한 감상 내용이라고 할 수 없다.

① '춘향'의 '일편단심'은 부채하는 대상에 닿고자 하는 확산의 감정이며, 대상이 오기를 기다리는 정지의 의지가 동시에 작용하는 정서라고 할 수 있다.

④ '꽃동산'은 '춘향'이 소망하는 내면에 존재하는 원형적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34~38] 작품 해제

김원일, 「도요새에 관한 명상」

산업화가 진행되던 1970년대 동진강 하구를 배경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한 가족의 이야기를 다양한 시점의 변화를 통해 보여 주고 있는 작품이다. 실향민인 아버지는 도요새 무리를 보며 고향을 그리워한다. 도요새는 북을 향해 날아갈 수 있지만 분단으로 인해 아버지는 이북에 두고 온 고향에 갈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남북 분단의

현실에 대한 아픔과 실향민의 슬픔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시국 사건에 연루되어 학교에서 제적된 후 낙향한 '병국'은, 철새 도래지인 동진강 하구에 언제부터인가 도요새가 사라지고 있는 현실에 관심을 갖고 환경오염의 주범을 밝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그러다 철새의 죽음에 동생 '병식'이 관련되어 있음을 알게 된다. 그리고 재수생인 '병식'은 친구인 죽제비와 함께 도요새를 독살해서 박제사에게 넘겨 용돈 벌이를 한다. 하지만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다. 이는 생명적 가치보다 물질적 가치를 중시하는 '병식'의 탐욕이 그의 삶을 병들게 한 때문이다.

34. 자료를 활용한 작품 이해의 적절성 판단

정답 ③

[A]의 "아니야. 아버지는 정말 전쟁의 희생자야. 통일을 못 이루는 이 분단의 현실이 아버지의 모든 희망을 빼앗아 갔어. 요컨대 아버지 삶의 근간을 뚫어 버린 거야."라는 '형'의 말을 통해, '형'은 분단이 아버지의 삶의 근간을 빼앗아 갔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선생도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이 지구상에 공존하는 한 무력의 길 이외는 통일이 힘들다고 말했어. 나도 동감이야."라는 '나'의 말은 통일이 그만큼 어렵고 힘들다는 말이지 무력으로라도 통일을 해야 한다는 말이 아니므로 ③은 적절하지 않다.

35. 내용에 대한 구체적 이해

정답 ③

마지막 문단의 '아버지는 결국 권고사직을 당했다. ~ 퇴직금을 받았으나 그 돈으로 구멍을 막기에는 모자랐다. 나머지 돈은 엄마가 어떻게 융통한 모양이었다.', '역시 엄마는 수완가였다. 엄마는 우리 식구를 거리에 나앉게 하지 않았다. 물론 끼니를 거르게 만들지도 않았다. 엄마의 능력으로 우리 식구는 그런대로 옛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다.'라는 내용을 통해 '엄마'가 '아버지'의 퇴직금만으로 가족의 생계를 꾸려나갔다고 볼 수 없으므로 ③은 적절하지 않다.

① '아버지는 늘 정직과 청렴결백을 생활신조로 삼았다.'라는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② 아버지의 대화 내용 중 "그러나 난 공산주의가 원래 새, 생리에 맞지 않았어. ~ 그들은 매사에 너무 과격했거든. ~ 사람이란 다 개성이 다르므로 해서 가, 각자의 꿈과 소망이 다르듯, 그런 자유와 창의력을 나는 존중하지."라는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④ 첫째 문단과 마지막 문단의 내용을 통해 아버지가 학교의 공금을 빼내 써서 권고사직을 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⑤ '언젠가 아버지는, 고향을 잃을 때부터 가슴에 큰 구멍이 뚫렸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고향을 잃고 살기는 엄마도 마찬가지였다.' 부분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이다.

36. 서술 내용의 기능 이해

정답 ⑤

㉠에서는 아버지가 강원도 통천군 두백리가 고향이고, 배

열 척과 큰 어장까지 가진 재력가의 아들로 태어났으며, 해방 전에는 일본서 전문학교까지 다녔고, 해방 후에는 서울서 대학에 적을 두었다가 전쟁이 나던 해 약혼을 하기 위해 고향으로 올라갔다가 징집을 당해 인민군 소위로 참전했다는 것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다.

37. 다른 장르에의 적용과 그에 대한 적절성 평가 [정답 ④]

<보기>의 S# 93은 원작 [B]의 ‘어느 날 아버지는 인사불성으로 술에 취해 돌아왔다. ~ 아버지는 우리의 방으로 건너와 형과 나를 잡고 투정했다. 엄마는 그 돈으로 깨어지려는 계를 겨우 수습한 모양이었다.’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S# 93은 ‘아버지’가 ‘형과 나’를 붙잡고 투정을 하는 원작과는 달리, ‘엄마’까지 등장시키고 있는 것은 맞다. 하지만 ‘아버지’는 가족 모두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엄마’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④는 적절하지 않다.

② [B]는 ‘그러나 엄마는 파산, 집단 자살, 그것도 아니라면 나 혼자 감옥에 가거든 잘 먹고 잘 살아라는 극단적인 위협조차 사양치 않았다. 그렇게 협박과 울음을 섞어 아버지를 설득시킨 것이다.’와 같이 서술 형태인 반면, S# 91은 ‘아버지’와 ‘엄마’가 직접 대화하는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S# 91은 원작과 달리 ‘아버지’와 ‘엄마’의 갈등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⑤ S# 94에서는 원작 [B]에서 ‘약속한 보름’이 지난 후 ‘아버지’가 ‘매일’ 자살 타령을 읊조렸다는 부분을, 원작과 달리 ‘보름 후, 안방’이라는 하나의 시공간을 설정하여 ‘아버지’와 ‘엄마’의 갈등을 집약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8. 지문의 단어를 활용한 다른 표현의 적절성 [정답 ②]

문제에서는 ㉠‘아니, 전에도 경제권은 엄마가 쥐고 있었다.’라는 표현을 ‘아버지’를 주어로 하면서 지문의 단어를 활용한 표현으로 바꾸라고 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것은 ㉡이다. ㉡에서는, ‘엄마’가 경제권을 쥐고 있다는 것을 ‘아버지’가 경제권 행사에 직접적인 권한이 없음을 ‘껍데기’에 비유하여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39~42] 작품 해제

작자 미상, 「조웅전」

이 작품은 국문으로 된 영웅 소설이며 군담 소설로, 진충보국(盡忠報國)과 자유연애를 주제로 하고 있다. 전체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조웅과 이두병의 대립이고, 둘째는 조웅과 변왕의 대립이며, 셋째는 다시 조웅과 이두병의 대립이다. 조웅과 이두병의 대립은 그 아

버지 조정의 죽음에 따른 숙명적인 것이라 할 수 있고, 변왕과의 대립은 그 부친이 위왕과 우호 관계였기 때문에 형성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작품은 여타의 군담 소설과 비교할 때 몇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명산대천(名山大川)에 기도를 드림으로써 아들을 얻는 기자(祈子) 정성에 대한 이야기가 없고, 주인공이 천상의 고귀한 신분을 가졌으나 특별한 인연으로 지상에 하강한다는 식의 화소가 없다. 또 장 소저와 혼전에 동침하게 되는데, 이는 보수적인 윤리 의식을 뛰어넘는 매우 이색적인 것이다. 이러한 특색은 이 작품이 대중들의 기호에 맞게 통속화되는 과정에서 생겨난 것으로 볼 수 있다.

39. 작품의 세부 내용에 대한 이해

[정답 ④]

이 글에서 ‘승상’은 ‘왕부인’의 꿈에 나타나 날이 새면 큰 환을 당할 것이니 ‘웅’을 데리고 급히 도망하라고 이르는 부분에서만 등장하고 있다. 그리고 ‘송 태자’에 대해서는 ‘외객관에 두었더니, 조신이 다시 간하여 태산계랑도에 정배 안치하여 소식을 끊게 하니라.’라고만 서술하고 있다. 따라서 ④‘승상은 송 태자에게 조웅을 돌려 달라고 부탁하였다.’는 이 글의 내용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① 이 글에서 ‘이때 이두병이 큰 아들 관을 동궁으로 봉하고 국호를 고쳐 평순 황제라 하고 개원(改元)하여 건무(建武) 원년(元年)하다.’라고 한 내용을 통해 ‘이두병’이 스스로를 황제라고 칭했음을 알 수 있다.

② ‘~그저 돌아서며 분을 참지 못하여 필낭의 붓을 내어 경화문에 대서특필(大書特筆)하여 이두병을 욕하는 글 수 삼 구를 지어 쓰고 자취를 감추어 돌아오니라.’라는 내용에서 알 수 있다.

③ <중략 부분의 줄거리> 이전 부분에서 ‘왕부인’이 꿈을 꾸 후 ‘바빠 행장을 차리자.’라고 하였고, <중략 부분의 줄거리>에서 ‘조웅 모자는 급히 길을 떠나고’라고 하였으므로 ‘왕부인’은 꿈을 꾸 후 ‘웅’과 함께 길을 떠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⑤ ‘그 중(월경)이 웃고 말하기를, / “대국 조충공의 부인이 아니시니까? 일신을 감추어 변형을 굳게 하온들 소승이야 모르리까?”’라고 한 내용을 통해, ‘월경’은 ‘왕부인’이 신분을 감추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40. 인물의 발화 의도 파악

[정답 ④]

[A]에서 ‘월경’은 ‘왕부인’을 안심시키기 위해 자신이 ‘왕부인’을 잡아갈 중이 아니라고 직접적으로 말하고, 과거에 자신이 승상의 화상을 그리고 천금을 받았던 인물이라는 것을 ‘왕부인’에게 환기시키고 있다. 그러나 ‘왕부인’은 “천금을 줄 때는 확실했겠으나 분명히 명심한 일이 아니라 이는 기억하지 못하니 존사는 꺼리지 말고 바른 대로 가르치소서.”라며 ‘월경’의 진의를 확인하려고 하고 있다.

41. 소재의 기능 및 역할에 대한 이해

[정답 ①]

㉠의 ‘꿈’은 ‘왕부인’과 ‘조웅’, 즉 조웅 모자에게 닥친 위기를

알리는 기능(㉔)을 하여 그들이 급히 길을 떠나 화를 면하게 하고는 있지만, ‘꿈’으로 인해 조웅 모자 사이에 새로운 갈등이 유발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㉑은 적절하지 않다.

㉓ ㉑의 ‘글’은, ‘월경’이 과거에 ‘왕부인’택 승상의 화상을 그리던 중이라는 사실을 밝히는 증거로, 과거에 화상을 그리고 부인을 보니 잉태한 지 칠 삭이거늘 짐작하는 도리 있어 부인의 상을 보고 앞날의 어려움을 기록하여 화상 등에 넣었다는 ‘월경’의 말을 입증한다. 따라서 ㉑‘글’은 ‘왕부인’과 ‘월경’의 과거 인연을 확인시켜 준다고 말할 수 있다.

㉕ ㉑의 ‘글’은 과거에 ‘월경’이 화상을 그리고 잉태한 지 칠 삭인 부인을 보며 짐작하는 도리 있어 부인의 상을 보고 앞날의 어려움을 예측한 내용이다. 그런데 그 내용이 정확히 맞아떨어지고 있으므로, ㉑‘글’은 ‘월경’이 초월적 능력을 지닌 존재임을 보여 준다고 말할 수 있다.

42. 자료를 활용한 세부 정보의 심층적 이해 정답 ⑤

이 글의 내용에 근거할 때, ‘월경’이 위기에 처한 ‘왕부인’과 ‘웅’을 돕는 것은, 자신이 과거에 승상의 화상을 그리고 부인에게 천금을 받았던 인연이 있고, ‘조웅’의 뛰어난 인물됨(‘성수는 누실고? 굴삼려 충혼(忠魂)이라. 복중(服中)에 끼친 혈육 활달한 기남자라.’)을 예견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부처 제자’들이 이념의 훼손을 가져온 집단 제거의 임무를 완수하는 주체라는 것을 이 글을 통해서도 판단할 수 없으므로 ⑤는 적절한 감상 내용으로 볼 수 없다.

② 이 글에서 ‘조웅’은 관동들이 부르는 시절 노래를 듣고 ‘전 왕조의 일을 생각하니 일편단심에 굽이굽이 쌓인 근심 갑자기 생기는지라.’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보기>에서 작품 속 ‘조웅’의 역할이 ‘질서와 이념의 훼손을 가져온 집단을 제거하고 이전의 질서와 이념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므로 ②처럼 말할 수 있다.

③ ‘이두병을 대하여 사생을 결단하고자 싶되 강약이 같지 않’다는 것의 의미는 문맥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조웅’은 관동이 모여 부른 시절 노래를 듣고 분을 참지 못하나 아직 질서 파괴 세력에 대적할 주체로서의 역량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경화봉에 이두병을 욕하는 글 수 삼 구를 지어 쓰고 자취를 감추어 집으로 돌아온 것이다.

[43~45] 작품 해제

이이, 「고산구곡가(高山九曲歌)」

이 작품은 작가가 벼슬에서 물러나 황해도 해주 석담에서 은병정사를 짓고 후학을 양성하던 때, 주자의 <무이도가>의 영향을 받아 지은 작품이다. 총 10수로 이루어진 연시조로, 자연을 즐기며 학문에 힘쓰고자 하는 마음을 형상

화하고 있다. 각 수를 시간의 순서와 연관시켜 하루의 시각적 순환과 한 해의 계절적 질서에 따라 변화하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노래하였다. 또한 이와 결부시켜 자연에서 학문에 정진하겠다는 작가의 결의를 드러내고 있다.

43. 작품 구성에 대한 이해 정답 ③

지문에서는 구곡 중 일곡(一曲)부터 오곡(五曲)까지를 순차적으로 제시하고 있다(㉑). 그런데 <2수>의 ‘관암’에서 <6수>의 ‘은병’까지 이동 경로를 제시하고 있다고 볼 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㉑은 지문의 구성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① 이 노래에서는 각 수를 ‘-곡은 어드메오’로 시작하고 있다.

② <2수>부터 <6수>까지의 구성을 보면, ‘일곡(一曲)부터 ‘오곡(五曲)’까지 차례대로 제시되어 있다.

44. 자료를 활용한 작품 감상의 적절성 판단 정답 ④

<보기>에서 ‘율곡은 자연 속에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뿐 아니라 학문을 통해 도학적 이상을 추구했다고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6수’는 ‘오곡은 어디인가 숨어 있는 듯이 병풍처럼 둘러선 석벽이 보기 좋네./물가에는 정사(精舍, 학문을 가르치기 위하여 마련한 집)가 있는데 맑고 깨끗한 정취가 끝이 없다./이 가운데서 항상 학문을 닦고 연구하며 밝은 달과 맑은 바람을 대상으로 시를 짓고 흥취를 자아내어 즐겁게 놀리라.’라고 노래하고 있다. 따라서 ‘6수’의 ‘소쇄함’이 ‘가이 없다’를 학문을 통해 도체를 파악하는 길이 쉽다라는 의미로 이해한 ④의 감상은 적절하지 않다.

② ‘4수’의 ‘푸른 나무 사이로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지저귀는 산새, ‘키 작고 가로 퍼진 소나무를 흔드는 바람’이라는 자연의 조화는 자연의 흥취를 알고 그 자연에서 진리를 파악하는 진정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⑤ ‘6수’의 ‘강학도 하려니와 영월음풍 하리라’는 ‘학문을 닦고 연구하며 밝은 달과 맑은 바람을 대상으로 시를 짓고 흥취를 자아내어 즐겁게 놀리라.’라는 뜻이므로 자연을 즐기는 것과 도학적 이상의 추구가 다르지 않음을 보여 준다고 말할 수 있다.

45. 작품 속 시어의 의미 추론 정답 ②

<3수>에서 ‘사람(㉑)은 ‘승지(勝地)를 모르’고 있다. 그런데 ‘승지’는 경치가 아름다운 곳인 동시에 도체, 즉 자연 속에 담긴 진리가 내재되어 있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승지를 모르’는 ‘사람’은 자연의 흥취를 깊이 알아 그 자연에서 진리를 파악하는 진정한 즐거움인 지락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②가 가장 적절하다.